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중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은영*

I 알기 쉬운 개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건강한 정서발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중학생 자녀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수록 자녀에게 더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 방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긍정적 양육은 자녀가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역량이 실제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자녀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임을 보여준다. 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부모는 비교적 짧은 대화시간으로도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에서 단순히 “자녀와 더 많이 대화하세요”라고 일반적으로 조언하는 것보다,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가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양육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 연구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감정 교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강의초빙교수,
caeaya@naver.com

투 고 일 / 2024. 11. 27.

심 사 일 / 2025. 3. 10.

심사완료일 / 2025. 3. 20.

I 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의 정서인식능력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및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4차년도(중1)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에는 부모와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대한 특별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와 학생 모두의 정서인식 능력에 응답한 2,2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남학생 1,142명, 50.3%). 분석은 Process Macro Model 4, Model 1, Model 7을 통해 각각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과 학생의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적을 때,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라 조절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수준에 따른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부모교육에서 정서인식능력과 양육 행동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의사소통 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부모 정서인식능력, 중학생 정서인식능력,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대화시간, 조절된 매개효과

I. 서 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정서·행동 관심군 비율이 2019년 8.9%에서 2022년 11.3%로 증가했으며, 우울·불안을 경험하는 학생 비율도 같은 기간 6.2%에서 9.1%로 상승했다(교육부, 2023).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불안장애가 25.8%, 우울증이 23.8%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Amorós-Reche, Belzunegui-Pastor, Hurtado & Espada, 2022),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이자 정신건강이 취약한 시기이다(Erikson, 1963). 이 시기의 정서적 발달은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정서조절 능력이 또래관계 만족도의 43%, 학교생활 적응도의 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rlak, Domitrovich, Weissberg & Gullotta, 2015; van Noorden, Haselager, Cillessen & Bukowski, 2015). 따라서 학업적 성취뿐 아니라 적응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학생의 정서 발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이정숙, 채수은, 2021). 적응적인 정서발달이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며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Mayer & Salovey, 1997).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2.3배, 또래관계 만족도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적응적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의 정서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정서발달은 다양한 정서적 역량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서적 역량들 중에서도 ‘정서인식능력’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정서인식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서조절, 공감능력, 정서표현 등 상위 수준의 정서적 역량 발달을 위한 토대가 된다(Baron-Cohen et al., 2001; Salovey & Mayer, 1990).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서인식능력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서인식능력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정서인식능력 발달은 이후 성인기의 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Greenberg, 2016).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들은 청소년기 두뇌 발달과 정서인식능력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정서인식 발달이 전두엽 및 편도체의 성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서인식능력의 발달은 단순한 감정 인지를 넘어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메타분석 연구들은 청소년의 정서인식능력이 또래관계,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Blatt, 2008). 특히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상황에 적합한 정서조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서인식능력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종단연구들은 청소년기의 높은 정서인식능력이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김선미, 홍상황, 2014; Seymour et al., 2016). 이와 같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정서인식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서인식능력은 다른 정서적 역량들의 발달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특히 청소년기의 건강한 정서발달과 적응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정서인식능력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Achenbach & Howell, 1989; Aka & Gencoz, 2014; Lerner & Steinberg, 2009). 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만나는 정서 교육자이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다(Gottman, Hooven & Katz, 1994; Saarni, 1990).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인식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astro, Halberstadt, Lozada & Craig, 2015;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Field & Kolbert, 2006). 가족은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차이점을 협상하는 첫 번째 환경이며, 건강한 가족 내 상호작용은 자녀의 정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Alavi et al., 2017). 다수의 연구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의 정서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Achenbach & Howell, 1989; Kolb, 1989; Parke & Buriel, 2006). 예를 들어, Turculet과 Tulbure(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부모의 정서적 이해와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alovey 외(2000)의 연구 또한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자녀의 정서인식능력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부모의 정서조절 수준이 자녀의 정서와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학생의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다운, 박정윤, 2024; Argyriou, Bakoyannis & Tantaros, 2016; Darling & Steinberg, 1993; Young & Widom, 2014). 양육태도는 자녀를 키우는 정서적 환경으로서 자녀의 적응적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Darling & Steinberg, 1993).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따뜻함과 지지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며, 이는 정서인식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etts, Trueman, Chiverton,

Stanbridge & Stephens, 2013). 반면,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낮은 자존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여 부적응적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han & Koo, 2011;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McElhaney & Allen, 2001).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여러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특히 Gross(2015)의 정서조절 이론에 따르면, 정서인식은 효과적인 정서조절의 첫 단계로, 자신의 정서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상황 선택, 인지적 재평가, 반응 조절과 같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조절 능력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분노, 좌절, 슬픔 등)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여 보다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 (Rutherford, Wallace, Laurent & Mayes, 2015). Meyer와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인식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지지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주요한 영향 요인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을 이어주는 매개 변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정희와 심혜원(2011), 최효식 외(201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사회적 능력이나 정서성 기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화옥과 김민정(2014)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양육태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의 정서적 특성과 자녀의 정서 발달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는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가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는 부모-자녀 간의 대화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반응과 표현방식을 학습하는데, 이때 상호작용의 빈도와 지속시간은 학습효과의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Thompson & Meyer, 2007). 발달맥락주의 관점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특성이 상호작용의 양적 특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설명한다(Lerner, 1991).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충분한 대화시간은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가 자신과 자녀의 정서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류신혜, 박수아, 2023; 배희분, 옥선화, 양경선, 2013).

반면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부모-자녀 관계

의 질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Larson & Richards, 1994), 청소년기의 특성상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Collins & Laursen, 2004).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반드시 정서적 유대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Branje, Laursen & Collins, 2012),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정서인식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강다운, 박경윤, 2024).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서현원 외(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정서와 그것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특성이 부모-자녀 대화시간 수준에 따라 자녀의 특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대화시간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쳤으며, 부모의 정서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특성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도 있었지만,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그쳤고, 부모-자녀 대화시간과 같은 구체적인 부모 행동의 조절효과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 측정에 내재된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정서적 특성과 구체적인 행동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정서인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부모교육 및 사회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 연구문제 2.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조절역할을 하는가?
- 연구문제 3.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라 달라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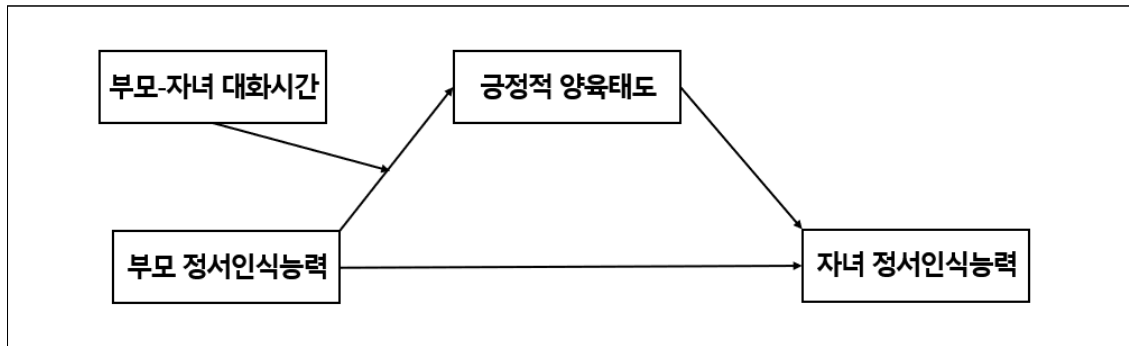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2018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자료로,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가 중학교에 진학한 2021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4차년도 자료에는 부모와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대한 특별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에 모두 응답한 2,27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1,142명(50.3%), 여학생 1,128명(49.7%)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측정도구

1) 부모 및 학생 정서인식능력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4차년도 데이터 중 부모와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을 활용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Baron-Cohen, Wheelwright, Hill, Raste, Plum(2001)이 개발한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RMET)로,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테스트는 사진을 보고 제시된 네 가지 감정 중 가장 적절한 감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씩으로, 모든 문항에서 올바른 감정을 선택한 경우 28점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와 학생 정서인식능력의 신뢰도는 각각 .665와 .633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는 KCYPS 2018에 포함된 부모 양육태도 척도(PSCQ_A)를 사용하여였다. 이 척도는 Skinner, Johnson and Snyder(2005)가 개발한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PSCQ_A)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와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밀관성)로 나누어 각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4 미만인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문항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긍정적 양육태도 관련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따스함 .887, 자율성 지지 .860, 구조 제공 .756, 전체 긍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640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 대화시간

부모-자녀 대화시간은 배상률 외(2013)의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KCYPS 2018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지난 학기 중 하루 일과 중 부모님(또는 보호자)과의 대화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전혀안함(1점), 30분 미만(2점), 30분~1시간 미만(3점), 1시간~2시간 미만(4점), 2시간~3시간 미만(5점), 3시간~4시간 미만(6점), 4시간 이상(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중과 주말 각각의 대화시간을 구분하여 응답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부모-자녀 대화시간 변수를 산출하기 위해, 주중 대화시간에 5를 곱하고 주말 대화시간에 2를 곱한 후, 7로 나누어 평균적인 부모-자녀 대화시간을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7.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자료의 분포와 정규성을 검토하였고,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으며,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는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통해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전체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8보다 작으므로 전체 변인이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6). 전체 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부모 정서인식역량은 학생 정서인식역량($r=.767, p<.001$), 긍정적 양육태도($r=.179, p<.001$)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부모-자녀 대화시간과는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r=-.029, p>.05$). 학생 정서인식역량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나($r=.199, p<.001$) 부모-자녀 대화시간과는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고($r=-.040, p>.05$),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관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r=.234, p<.001$).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1. 부모 정서인식역량	1			
2. 학생 정서인식역량	.767***	1		
3. 긍정적 양육태도	.179***	.199***	1	
4. 부모-자녀 대화시간	-.029	-.040	.234***	1
평균	16.31	15.53	3.18	3.98
표준편차	6.24	5.55	.49	1.27
최소값	1.00	1.00	1.27	1.00
최대값	27.00	28.00	4.00	7.00
왜도	-.52	-.50	-.36	.60
첨도	-1.01	-.90	.23	.04

*** $p<.001$

2. 매개효과 분석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17). 먼저 1단계 모형은 긍정적 양육태도의 3.2%를 설명해주었으며($F=75.425$, $p<.001$),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14$, $p<.001$). 2단계 모형은 학생 정서인식능력의 59.3%를 설명해주었으며($F=1649.614$, $p<.001$),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높을수록($B=.673$, $p<.001$)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B=.707$, $p<.001$) 학생 정서인식능력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의성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표 3 참조), 간접효과의 신뢰구간(LLCI와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4).

표 2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1단계: 종속변수(긍정적 양육태도)			2단계: 종속변수(학생 정서인식능력)		
	<i>B</i>	<i>SE</i>	<i>t</i>	<i>B</i>	<i>SE</i>	<i>t</i>
(상수)	2.945	.029	103.010***	2.316	.496	4.667***
부모 정서인식능력	.014	.002	8.685***	.673	.012	55.494***
긍정적 양육태도				.707	.153	4.623***
$R^2=.032$, $F=75.425$ ***				$R^2=.593$, $F=1649.614$ ***		

*** $p<.001$

표 3

긍정적 양육태도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i>B</i>	<i>SE</i>	LLCI	ULCI
총효과	.683	.012	.659	.706
직접효과	.673	.012	.649	.696
간접효과	.010	.003	.006	.015

3. 조절효과 분석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1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는 표 5 상단과 같다. 분석결과 부모 정서인식능력($B=.027$, $p<.001$),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높을수록($B=.146$, $p<.001$)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부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003$, $p<.05$) R^2 변화량도 .002로 유의하였다($F=6.203$, $p<.05$).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는 그림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가 증가하였으며,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많을 때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지지만, 이러한 차이는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낮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의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나, 부모와의 대화가 적을 때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따른 조건부 효과 검증

	Effect	SE	LLCI	ULCI
$M-1SD(2.707)$	.019	.002	.014	.024
$M(3.978)$	.015	.002	.012	.018
$M+1SD(5.248)$	.011	.002	.007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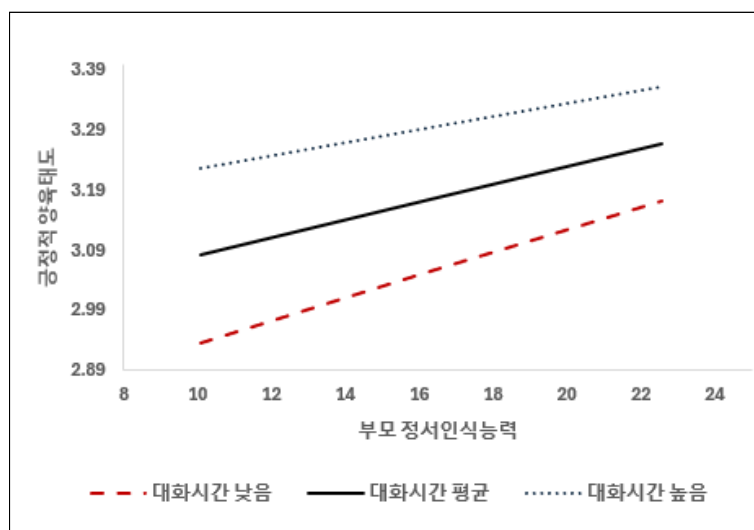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부모의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Hayes, 201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표 5), 부모 정서인식능력($B=.027$, $p<.001$)과 부모-자녀 대화시간($B=.146$, $p<.001$)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부모-자녀 대화시간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타났다($B=-.003$, $p<.05$).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대한 부모 정서인식능력($B=.673$, $p<.001$)과 긍정적 양육태도($B=.707$, $p<.001$)의 영향도 유의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LLCI와 ULCI가 0을 포함하지 않아 부모 정서인식능력, 긍정적 양육태도,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6),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M(LLCI: .006, ULCI: .016), M-1SD(LLCI: .007, ULCI: .021), M+1SD(LLCI: .003, ULCI: .013)일 때, 모든 수준에서 LLCI와 ULCI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세 수준 모두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며,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매개효과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i>B</i>	<i>SE</i>	<i>t</i>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긍정적 양육태도)					
(상수)	2.352	.095	24.666 ^{***}	2.165	2.539
부모 정서인식능력	.027	.005	5.148 ^{***}	.017	.038
부모-자녀 대화시간	.146	.022	6.491 ^{***}	.102	.190
부모 정서인식능력 X 부모-자녀 대화시간	-.003	.001	-2.491 [*]	-.006	-.001
상호작용에 따른 R ² 증가			ΔR ² =.002 F=6.203 [*]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학생 정서인식능력)					
(상수)	2.316	.496	4.667 ^{***}	1.343	3.288
부모 정서인식능력	.673	.012	55.494 ^{***}	.649	.696
긍정적 양육태도	.707	.153	4.623 ^{***}	.407	1.007
R ² =.593 F=1649.614 ^{***}					
조절된 매개효과		<i>B</i>	<i>SE</i>	LLCI	ULCI
부모-자녀 대화시간		-.002	.001	-.005	-.000

* $p<.05$, *** $p<.001$

John Neyman 분석법(Hayes, 2017)을 통해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6.562점 이상일 경우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6.562점 이하인 경우(94.361%)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생 정서인식 능력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에 의해 조절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자녀 대화시간 수준에 따라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달라지며, 부모-자녀 대화시간이 증가할수록 매개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6.562점 이상일 경우에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Effect	SE	LLCI	ULCI
$M-1SD(2.707)$	.013	.004	.007	.021
$M(3.978)$	.011	.003	.006	.016
$M+1SD(5.248)$	.008	.002	.003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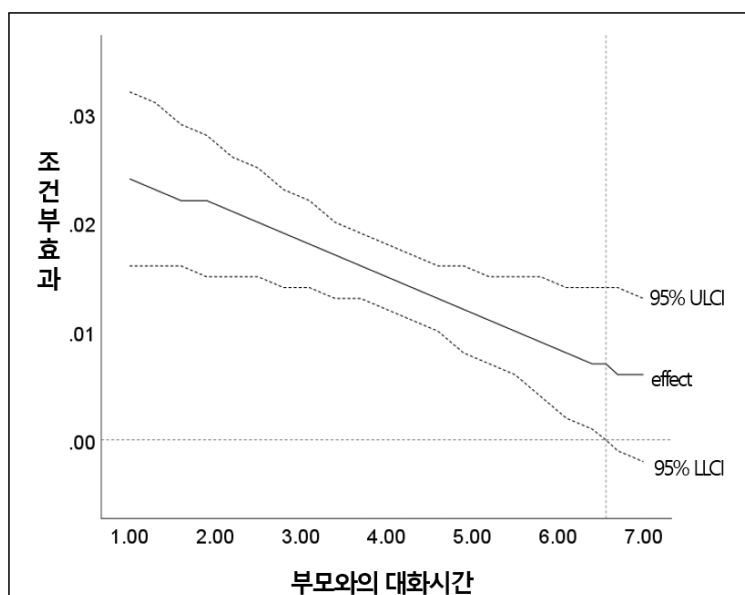


그림 3.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CYPS 2018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중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자녀 정서인식능력 간의 높은 상관관계(.77)가 단순한 양육행동의 결과만이 아닌 더 복합적인 과정의 작용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거울뉴런 시스템을 통한 정서적 모방과 학습, 세대 간 애착 패턴의 전이,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양육태도 간의 유의미한 연결 경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최근 정서심리학 분야의 이론적 관점과 일치한다. 특히 정서인식이 뛰어난 부모들은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들을 더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함으로써, 민감하고 일관된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기질적 특성이 아닌, 정서 처리 과정의 실제적 역량이 양육 실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매커니즘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학생 정서인식능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울뉴런 시스템은 부모가 보여주는 감정을 자녀가 관찰하고 내면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자녀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타인에 대한 적절한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세대 간의 애착 패턴이 전이가 되는 과정도 자녀의 정서인식 발달에 깊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유전적 요인도 부모-자녀 간의 정서인식 능력 차이를 좁히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고려할 때,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인식 능력의 전이과정에서 중요한 경로를 제공해준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은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표현된다(Field & Kolbert, 2006).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며(Castro et al., 2015), 이러한 환경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데 필요한 안전 기지로 작용한다(Denham, 1998). 이는 부모의 정서적 이해와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Turculet & Tulbure,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향상과 함께 긍정적 양육태도를 촉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건강한 가족 내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정서역량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Alavi et al.,

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서인식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을 실제 양육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의 정서적 신호를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실천적 기술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지적이고 일관성있는 긍정적 양육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태도 외에도 다른 매개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 정서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가족 내 정서적 분위기(emotional climate), 그리고 명시적/암묵적 정서사회화 과정 등이 추가적인 매개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더욱 포괄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수행된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맥락이 크게 변화된 시기였다. 학교와 학원의 휴교, 외부 활동의 제한 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양적 증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않았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적 격리나 스트레스가 부모의 정서적 소진을 초래할 수 있으며(김성현, 2021; Serafini et al., 2020; Spinelli et al., 2020),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적으로 피로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및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희, 김선미, 김유지, 정혜숙, 2022). 이러한 맥락은 본 연구에서 발견된 대화시간의 제한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화시간의 증가보다는 부모의 정서적 역량과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과 함께, 부모의 정서적 상태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정서인식능력의 전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 대화시간은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낮을 때 대화시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대화시간은 부모 정서인식능력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화시간이 적을 때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부모는 짧은 상호작용에도 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어, 대화시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자녀의 미묘한 정서적 신호를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Salovey et al., 2000). 다음으로 정서인식

능력이 낮은 부모의 경우, 오히려 대화시간이 부족할 때 긍정적 양육태도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적 제약을 인식할 때 더욱 집중적이고 의식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려는 보상적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Alegre, 2012).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도 연관된다. 이 시기에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단순한 시간의 양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며(Larson & Richards, 1994), 특히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부모는 제한된 시간을 질적으로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정서인식능력이 낮은 부모는 시간 제약 상황에서 오히려 더 집중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양육태도를 발전 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견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양적 측면(대화시간)과 질적 측면(정서인식능력)이 복잡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짐을 시사한다. 특히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 형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설계에서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서인식능력이 낮은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부모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효과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효과의 실제적 의미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R^2 증가분 = .002), 이는 대규모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실제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효과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연관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자율성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패턴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때이다. 높은 정서인식능력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기 때문에, 짧은 상호작용으로도 충분한 지지와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다(Salovey et al., 2000). 이러한 발견은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단순한 시간의 양보다 상호작용의 질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Branje et al., 2012).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대화시간의 양적 증가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의사소통 전략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그리고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적 시사점과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정서인식능력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정서사회화 이론(Eisenberg et al., 1998)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정서인식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기보고식 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양육행동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대화시간이라는 맥락적 요인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특히 정서인식능력이 낮은 부모에게 있어 대화시간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에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단순한 상호작용의 빈도보다 질적 특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향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정서인식능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정서인식능력이 낮은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자녀와의 충분한 상호작용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정서인식 훈련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정서인식능력이 높은 부모의 경우,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질 높은 상호작용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모교육에서 정서인식능력과 양육행동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요구된다.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를 실제 양육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역량 강화와 실제 양육행동의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율성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짧은 상호작용에서도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수행되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설계를 통해 변인 간의 발달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다. 부모의 정서인식역량과 대화의 질적 측면 간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대화내용이나 상호작용 방식과 같은 질적 요소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대화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대화시간의 정확한 측정에도 제한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면/비대면 대화를 구분하고, 대화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등 가정환경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족 구조적 특성들은 부모-자녀 대화시간과 그 영향력에 주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환경 변인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정서인식능력의 관계를 탐색하는 기초연구로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의 정서발달과 부모-자녀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 정서인식능력이 학생 정서인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부모-자녀 대화시간의 차별적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대화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다운, 박정운 (2024). 중학생의 정서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8(2), 189-206. doi: 10.21459/kccr.2024.28.2.189
- 교육부 (2023). 202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김선미, 홍상환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의 매개 효과. **초등상담연구**, 13(4), 409-429.
- 김성현 (2021). 코로나19 시대 영유아기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13, 375-390. doi: 10.52902/kjsc.2021.13.375
- 김영희, 김선미, 김유미, 정혜숙 (2022).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집단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31(4), 477-490. doi: 10.5934/kjhe.2022.31.4.477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 10.21509/KJYS.2017.03.24.3.313
- 류신혜, 박수아 (2023). 부모의 긍,부정 양육태도와 자녀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중학교 집단에 따른 다집단 분석. **교육발전**, 43(2), 289-310. doi: 10.34245/jed.43.2.289
- 박화옥, 김민정 (2014). 대리양육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의 학교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0(3), 149-167. doi: 10.15820/khjss.2014.40.3.007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배희분, 옥선화, 양경선 (2013). 가족식사 빈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0(4), 125-149.
- 서현원, 이선영, 임혜정 (2021). 부모 자녀 대화시간이 자녀의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비밀 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41(3), 123-143. doi: 10.25020/je.2021.41.3.123
- 신정희, 심혜원 (2011). 소아암 아동·청소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8), 117-140.
- 이정숙, 채수은 (2022).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관한 최근(2011~2020년) 국내 연구 동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26(2), 51-73. doi.org/10.26894/kdge.2021.26.2.51
- 최은실, 정선아 (2012). 초등학생의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 간의 관계 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43-464. doi: 10.16983/kjsp.2012.9.3.443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정서성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와 우울의 종단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3), 119-14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2023 청소년 심리·정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3-R01.
- Achenbach, T., & Howell, C. (1989). Are America's Children's Problems Getting Worse? A 13-Year Comparis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1145-1154. doi.org/10.1097/00004583-199311000-00006
- Aka, B. T., & Gencoz, T. (2014). Perceived parenting styles, emotion recognition and regula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9, 529-533. doi.org/10.1016/j.sbspro.2014.12.418
- Alavi, M., Mehrinezhad, S. A., Amini, M., & Parthaman Singh, M. K. A. P. (2017). Family functioning and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youth. *Health Psychology Open*, 4(2), 1-5. doi:10.1177/2055102917748461
- Alegre, A. (2012). The relation between the time mothers and children spent together and the children's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Child & Youth Care Forum*, 41, 493-508. doi:10.1007/s10566-012-9180-z
- Amorós-Reche, V., Belzunegui-Pastor, À., Hurtado, G., & Espada, J. P. (2022). Emotional problems in Spanish children and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Clínica y Salud*, 33(1), 19-28. doi:10.5093/clysa2022a2
- Argyriou, E., Bakoyannis, G., & Tantaros, S. (2016). Parenting styles and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in adolescenc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7(1), 42-49.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doi:10.1111/sjop.12266
- Baron-Cohen, S., Wheelwright, S., Hill, J., Raste, Y., & Plumb, I. (2001).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vised version: A study with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2), 241-251. doi:10.1017/S0021963001006643
- Bell, D. C., & Bell, L. G. (2018). Accuracy of retrospective reports of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4), 1029-1040. doi:10.1007/s10826-017-0948-5
- Betts, L. R., Trueman, M., Chiverton, L., Stanbridge, A., & Stephens, J. (2013). Parental rearing style as a predictor of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0, 675-693. doi:10.1177/0265407512465998

- Blatt, S. (2008). *Polarities of experience: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in personality development, psychopathology and the therapeutic proc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anje, S., Laursen, B., & Collins, W. A. (2012). Parent-child communication during adolescence. In A. L. Vangelisti (Ed.), *Routledge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2nd ed., pp. 271-286). Routledge.
- Castro, V. L., Halberstadt, A. G., Lozada, F. T., & Craig, A. B. (2015). Parents' emotion-related beliefs, behaviours, and skills predict children's recognition of emo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4(1), 1-22. doi:10.1002/icd.1868
- Chan, T., & Koo, A. (2011). Parenting style and youth outcomes in the UK.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 385-399. doi:10.1093/esr/jcq013
- Collins, W. A., & Laursen, B. (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pp. 331-361). John Wiley & Sons.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doi:10.4324/9781351153683-8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Durlak, J. A., Domitrovich, C. E., Weissberg, R. P., & Gullotta, T. P. (Eds.). (2015). *Handbook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Research and practice*. NY: Guilford Press.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doi:10.2307/1131620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ield, J., & Kolbert, J. (2006). Enhancing emotional intelligence in parents: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role. *Emotionally Intelligent School Counseling*, 167-181. doi:10.4324/9781410613172-23
- Fosco, G. M., & Grych, J. H. (2021). Capturing the family context of emotion regulation: A family systems model comparison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5(5), 629-639. doi:10.1177/0192513x12445889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Gottman, J., Hooven, C., & Katz, L. (1994). The family as a metaemotion culture. *Cognition and Emotion*, 9, 229-264.
- Greenberg, L. S. (2016).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oss, J. J. (2015). Emotion regul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Psychological Inquiry*, 26(1), 1-26. doi:10.1080/1047840x.2014.940781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lb, B. (1989). Brain Development, Plasticity, and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1203-1212.
- Lamborn, S., Mounts, N., Steinberg, L., & Dornbusch, S.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6.
- Larson, R., & Richards, M. H. (1994). *Divergent realities: The emotional lives of mothers, fathers, and adolescents*. Basic Books.
- Lerner, R. M., & Steinberg, L. (2009).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Vol. 2.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3rd edn). Hoboken, NJ: Wiley
- Lerner, R. M. (1991). Changing organism-context relations as the basic process of development: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27-32.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4). New York: Basic Books.
- McElhaney, K. B., & Allen, J. P. (2001). Autonomy and adolescent social functio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isk. *Child Development*, 72, 220-231. doi:10.1111/1467-8624.00275
- Meyer, S., Raikes, H. A., Virmani, E. A., Waters, S., & Thompson, R. A. (2014).

- Parent emotion representations and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8(2), 164-173. doi:10.1177/0165025413519014
- Parke, R. D., & Buriel, R. (2006).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Vol. 3, pp. 429-504). New York: Wiley.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doi:10.3758/bf03206553
- Rutherford, H. J., Wallace, N. S., Laurent, H. K., & Mayes, L. C. (2015). Emotion regulation in parenthood. *Developmental Review*, 36, 1-14. doi:10.1016/j.dr.2014.12.008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6 (pp. 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Bedell, B. T., Detweiler, J. B., & Mayer, J. D. (2000). Current directions in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In M. Lewis & J.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pp. 504-520). New York: Guilford Press.
- Serafini, G., Parmigiani, B., Amerio, A., Aguglia, A., ... & Amore, M. (202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in the general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 113(8), 531-537. doi:10.1093/qjmed/hcaa201
- Seymour, K. E., Jones, R. N., Cushman, G. K., Galvan, T., Puzia, M. E., Kim, K. L., ... & Dickstein, D. P. (2016). Emotional face recognition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and adolescents engaging in non-suicidal self-injur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5, 247-259. doi:10.1007/s00787-015-0733-1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pinelli, M., Lionetti, F., Pastore, M., & Fasolo, M. (2020). Parents' stres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problems in families facing the COVID-19 outbreak in Italy. *Frontiers in Psychology*, 11, 1-7. doi:10.3389/fpsyg.2020.01713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934-949. doi:10.1177/0146167295219008
- Thompson, R. A., & Meyer, S. (2007).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249-268). Guilford Press.
- Turculet, A., & Tulbure, C. (2014). The 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parents and childre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2, 592-596.
- Van Noorden, T. H. J., Haselager, G. J. T., Cillessen, A. H. N., & Bukowski, W. M. (2015). Empathy and involvement in bully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 637-657. doi:10.1007/s10964-014-0135-6
- Young, J. C., & Widom, C. S. (2014). Long-term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emotion processing in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38(8), 1369-1381. doi:10.1016/j.chiabu.2014.03.008

ABSTRACT

The impact of parents' emotional awareness on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Choi, Eunyoung*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ays to enhance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parents' emotional awareness on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s well a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fourth wave (2018)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cusing on middle school first-year students. A total of 2,270 responses, which included both parents' and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were analyzed(50.3% male students).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Process Macro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s, moderation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while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tested using bootstrapp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motional awareness and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Seco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motional awarenes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s' emotional awareness on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through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level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rents' emotional awarenes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the time spent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suggesting the necessity of parental education and intervention to improve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Key Words: parents' emotional awareness,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al awarenes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arent-child communication time, moderated mediation effect

* Konkuk University, Visiting Lecturer, caeaya@naver.com